



教師團
劇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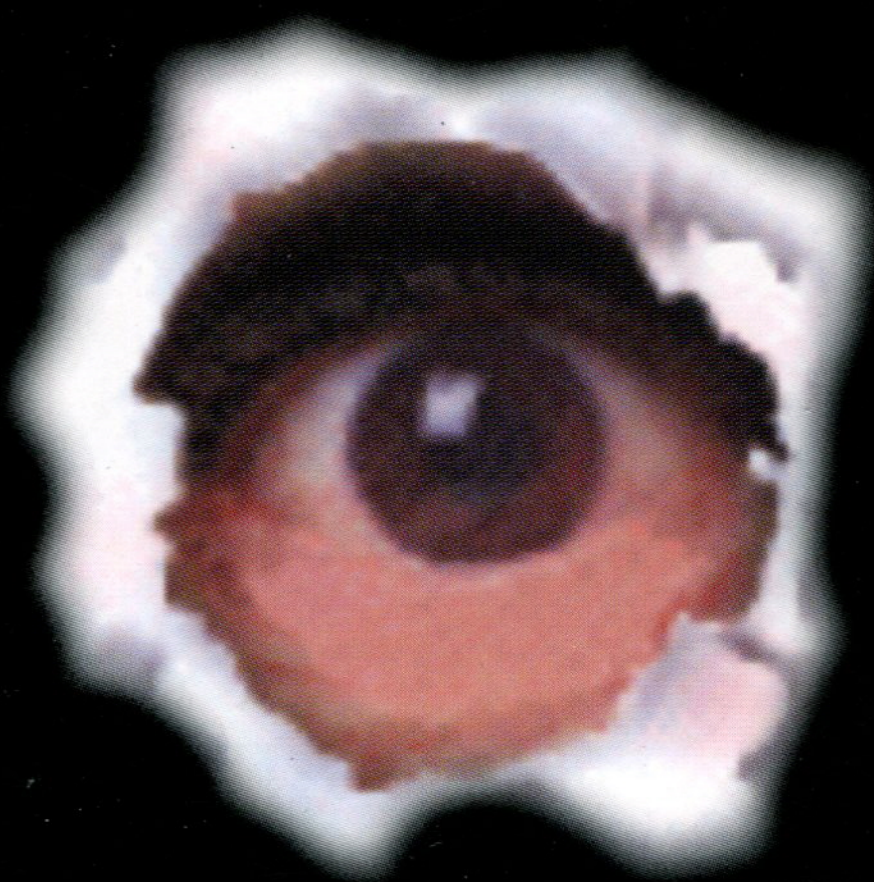
한 세 벌

제41회 정기공연

부산광역시 무대공연 지원금 사업

영월행 일기

작 : 이 강 백
연출 : 한 상 한
제작 : 정 용 식
기획 : 이 효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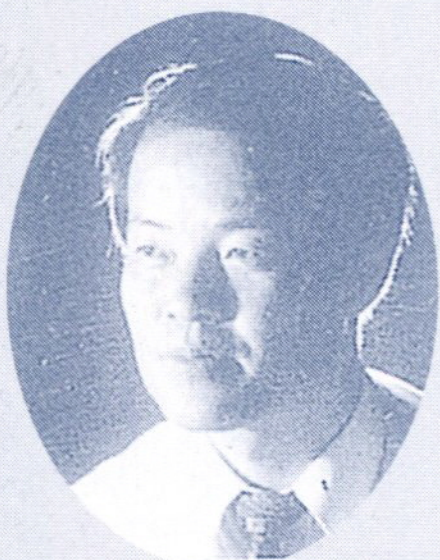


■ 일 시 : 2001년 11월 22일(목) ~ 25일(일)

평일 : 오후 6시 30분, 토·일 : 오후 3시, 6시 30분

■ 장 소 : 부산교육대학교 소극장 (참빛관)

■ 후 원 : 부산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교육청



연출
한상한

“과거로의 여행 -”

난 여행을 좋아한다.
번잡함을 싫어하는 성격 탓인지, 준비 없이 훌쩍 떠났다, 땀하니 돌아오
곤 한다. 여행길의 도반(道伴)도 늘상 정해져 있다.
그들과는 눈으로 이야기하고 가슴으로 대화할 수 있어서 좋기 때문이다.

요즘엔 폐사지(廢寺地)를 즐겨 찾는다. 얼마 전에도 나의 도반들과 영
원사터, 고달사터, 거둔사터, 법천사터 등을 함께 찾았다. 폐사지 여행은
화장기를 지운 여인의 얼굴 마냥 속내를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실
체를 볼 수 있어 좋다. 그들은 있을 자리에 묵묵부답(默默不答) 가부좌
(跏趺坐)하고 앉아 세월의 무게를 더하고만 있을 뿐이다. 그곳에서 말이
없는 그들과 나누는 대화는 참으로 편안하다.

그래서 말 수 적은 도반들과 폐사지를 즐겨 찾는지 모르겠다.

이번에도 과거로의 여행을 했다. 오백 년을 거스르는 과거로의 여행이
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은 자신을 독파(讀破)하는 행운유수(行雲流水)의 고
즈넉함은 애초부터 부재했다. 그 곳엔 약육강식(弱肉強食)이 판을 치고,
권모술수(權謀術數)가 일상인 세계였기 때문이다.

역사는 답습되는 것이라 했던가? 오늘의 있는 놈, 강한 놈, 똑똑한 놈들
의 껍판이 오백 년 전의 완벽한 답습이다. 권력의 언저리에서 힘있는 자
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예나 지금이나 초록이 동색이다.

이 작품의 심층적(深層的) 주제로 흐르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자유
의지와 사랑을 위한 순수가 어떻게 좌절되는 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에 연출의 초점을 맞추었다. 새삼스럽게 역사의 장을 넘나들고 감정
의 이입을 차단하는 원작의 장치를 어떻게 활용해 관객의 객관적 판단
을 유도하느냐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슈로 차용한 감시, 도청
등 표층적(表層的) 주제들과 지루하게 전개되는 극의 구조를 오늘의 문
제로 현장감 있게 형상화시키는 일도 간과할 수 없었다.

이강백은 참으로 형상화하기 어려운 작가이다.

그의 세상을 빚대는 우화적인 풍자를 구체화시키기 어렵고, 그의 시공을
넘나드는 상상력을 무대 위에 붙잡아 두기가 난이하며, 그가 그리는 절묘
한 허구의 세계를 현실로 구축하기가 힘들다. 작품 형상화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충고는 관객 몫으로 넘겨지지만, 허공 중에 부질없이 활개짓만 치
다만 것이 아닌지 자괴감(自愧感)에 좌불안석(坐不安席)인 것이 솔직한
지금의 심정이다.

가을을 사유(思惟)와 침잠(沈潛)의 계절이라 했던가?

이 가을에 외형의 껍데기를 깨며 내면의 울림에 귀 기울이고자 애태워
준 참여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연극이란 형극(荊棘)의 길을
함께 걷는 정겨운 연극 도반들께도 경의를 표한다.

‘영월행일기’는 이강백 특유의 상상에 바탕하여 자유로움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작품이다. 이강백 특유의 상상은 근거는 있되 근거에 절묘한 허구를 곁들이는 성격을 보인다. 그 근거는 어떤 면에서는 황당해 보이나 금방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동의를 얻어낸다. 그래서 ‘영월행일기’는 허구적 환상과 철학적 물음이 곁들여진 작품이 된다.

작가는 이 작품속에서 일정한 질서 속에서 그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지 모든 구속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자유인지를 묻는다. 작가는 자유를 어느 하나의 측면에서 정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치적, 신분적, 감정상의 문제 등에서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어느 하나에 구속되어 있음을 보인다. 인간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날 수 없기에 항상 자유를 갈망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리라.

세조시대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을 신숙주의 하인과 한명회의 종이 세 차례에 걸쳐 여행하는 과정과 그 인물들이, 현재의 시간과 현재의 인물들에게 이입이 되는 즉 과거와 현재를 섞어놓은 극중극 형식에 얹혀 진행된다. 여행은 단종의 마음을 염탐해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염탐에는 단종의 복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시각과 정적을 제거하려는 시각, 현재 시점의 정치·사회에 대한 시각들이 곁들여 진다.

고서적연구가인 조당전은 인사동에서 ‘영월행일기’라는 고서를 구입했다. 이 책의 진위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책은 화학적 조사로는 일단 진품이었다. 그래서 조당전은 그 내용을 고서적연구 동우회 회원들과 ‘영월행일기’를 내다 판 김시향이 함께 이 책의 내용을 연극으로 꾸며가면서 내용의 진실여부를 검증한다. 고서적 동우회회장 염문지가 세조역을, 인정 많고 긍정적인 성격의 부친필이 신숙주역을,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성마른 이동기가 한명회역을 맡아 단종의 죽음을 둘러싼 조정의 갈등을 극중극으로 재연하는데, 극의 인물과 극중극 인물의 성격설정을 비슷하게 가져감으로써 극과 극중극의 상호반영을 꾀한다. 그러나 상호반영이 성격창조에만 국한되고 극적 행동에까지 확대되지 않아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 그리고 학자의 킁킁한 서재와 오백년 전의 강원도를 오가는 과정에 내면의 풍경만을 너무 강조하여 관객에게 지나친 상상을 강조하여 피로감을 주는 측면도 있다.

조당전과 김시향은 종과 하인으로 분장해 과거여행을 떠난다. 책 속의 과거를 현재 시점과 오가며 연기해 보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은 단종의 포

심 상 교

(부산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작품해설

정변화와 이와 관련된 현실에서의 문제이다. 단종의 표정변화에 따른 봄, 여름, 가을의 세 번 여행은 단종의 세 표정, 즉 무 표정, 슬픈 표정, 웃는 표정과 연결되고 이는 다시 현실의 문제에 닿는다. 정치적 압제와 염탐 내지는 도청, 권력기관의 보이지 않는 듯한 폭력 등에 닿아 있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각 표정은 그 나름의 이유로 단종의 이유로 거론된다. 결국 세조는 단종의 웃는 표정을 참을 수 없다하여 사약을 내린다. 웃는 표정은 자유이고 그런 자유는 제왕인 자신 외에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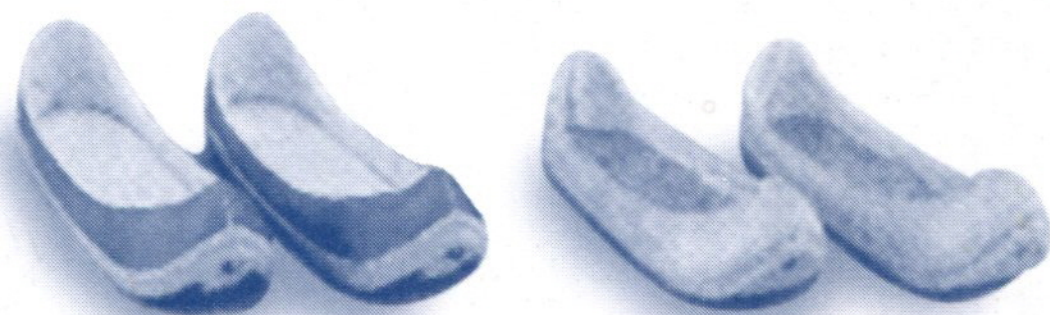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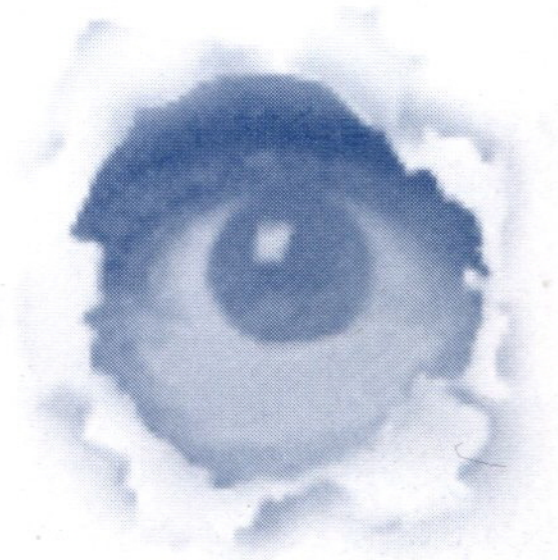
종의 신분으로 단종의 표정을 보고 온 신숙주의 하인은 소원대로 노적을 지우고 자유인이 된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 자유를 오래 견디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작가는 자유의 의미를 묻는다. 신분과 환경에 따라 자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자유란 없다는 것인지 질서 속에서 질서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자유는 필요하다는 것 인지의 문제를 던진다.

연출은 다소 지루하고 답답한 듯한 공연에 넉넉한 상상의 시간과 공간의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영월행일기'가 초연된 1995년 가을경만해도 폭압적 정치나 도청 등의 문제들은 여전히 사회를 불편하게 하는 여진(餘震)의 문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문제에 덜 불편해 한다. 그렇다고 이 연극이 현재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전은 어느 시대에서나 유효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하여 이 작품은 초연보다 몇 년 정도 지난 현재적 시점으로 어떻게 재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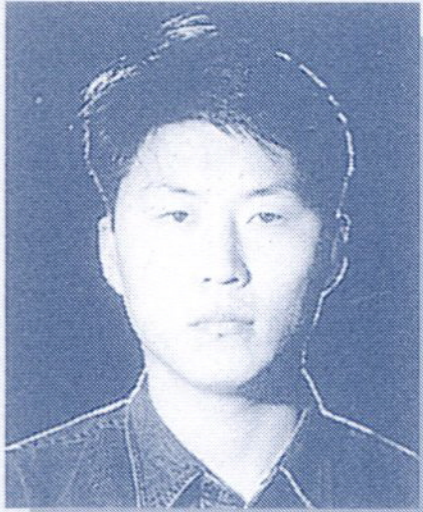
심 상 교

(부산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작품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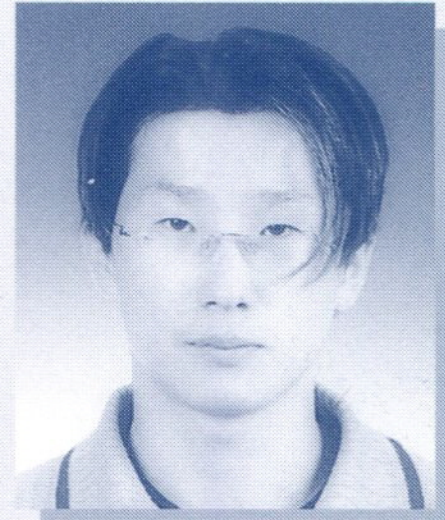
영월행 일기를 빛낸 이들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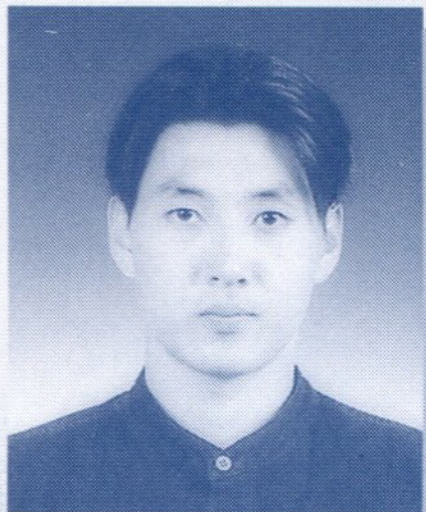
조당전 곽 상 국



세문지 정 용 식



복천필 김 민 수



이동기 박 진 우



김시향 서 소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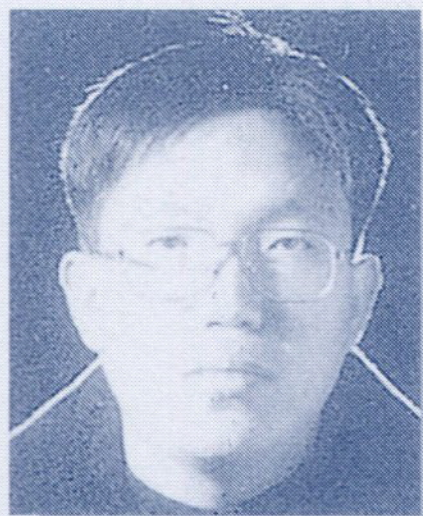


소년형상 박 경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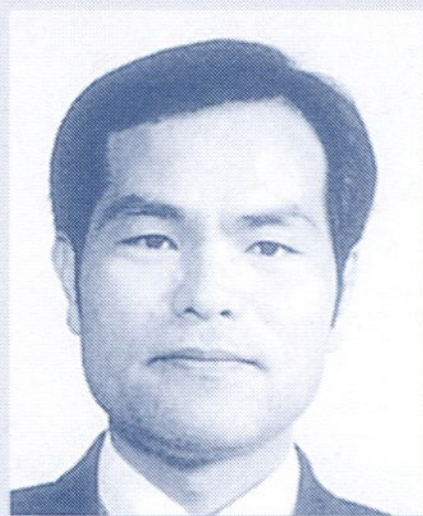
영월행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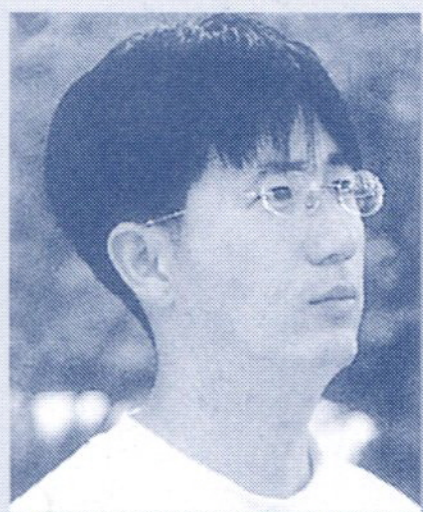
STAFF 영월행 일기를 빛낸 이들



조선출 김 병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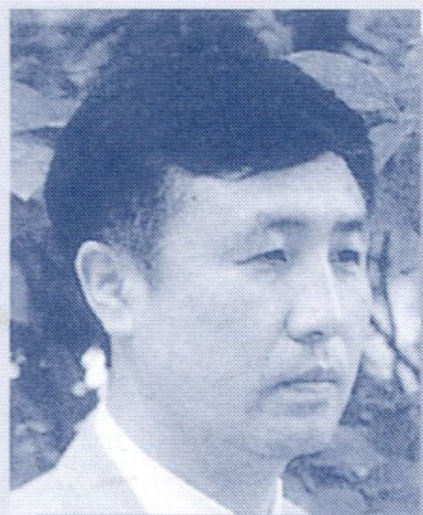
무대감독 김 병 락



무대장치 정 희 영



무대장치 최 동 식



조명 김 종 원



조명 최 영 용



음향 주 용 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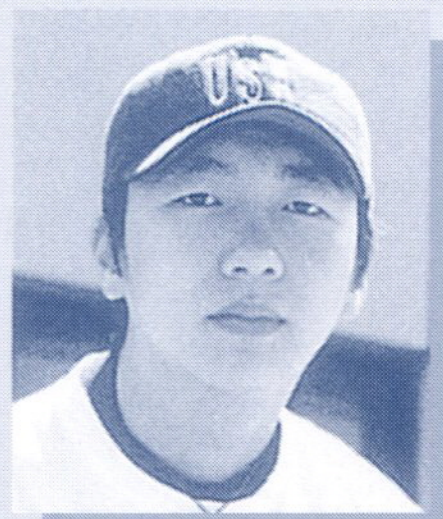
음향 이 희 녕

영월행



영월행 일기를 빛낸 이들 STAFF

일기



무대미술 황경호



포스터디자인 우혜선



대도구 전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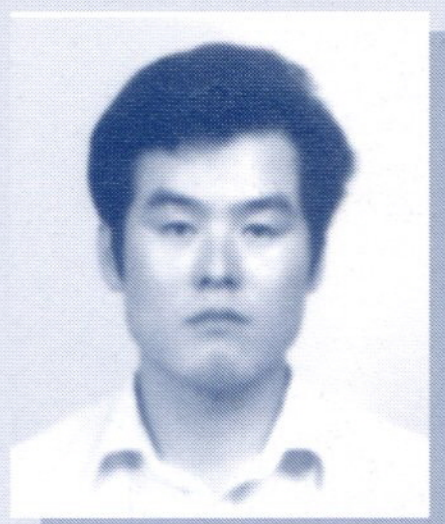
소도구 임경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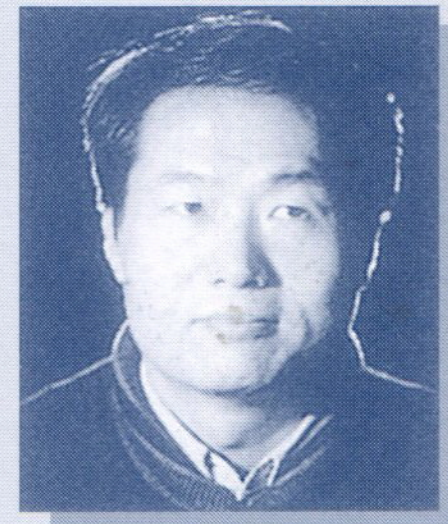
소도구 김귀순



의상 김지순



의상 양진찬



분장 나종기